

파라다이스, '2021 슈퍼워크' 진행

파라다이스가 '2021 파라다이스 슈퍼워크'를 25일까지 진행한다. 파라다이스시티와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이 참여하며 각 호텔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가능하다. 투숙은 내년 2월28일까지다. 단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 설연휴는 제외된다. 객실 최대 45% 할인 등을 기본으로 호텔 부대시설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사업 육성하는 CJ제일제당

“그린·화이트·레드 바이오 삼총사 다 갖췄네”

〈농축수산업·환경제어〉 〈화학산업소재를 바이오로 대체〉 〈의료·제약〉

CJ제일제당이 바이오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정하고 영역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린, 화이트, 레드 등 바이오 분야를 총망라하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꾸린 게 특징이다. 3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023 중기비전'을 발표하고, 4대 성장엔진의 하나로 웰니스(치유·Wellness)를 제시한 후 더욱 본격화 되고 있다.

기존 주력사업 식품과 시너지 기대 HDC현대EP와 맞손...240억 투자 다양한 친환경 컴파운딩 사업 진행 천렵 인수로 차세대 신약 개발 주력

●HDC현대EP와 바이오 컴파운딩 회사 설립
바이오사업은 농축수산업·환경제어와 관련된 '그린바이오', 재생 가능한 자원을 이용하거나 미생물과 효소 등을 활용해 기존 화학산업의 소재를 바이오 기반으로 대체하는 '화이트바이오', 의료·제약과 관련된 '레드바이오'로 나뉜다. 그간 CJ제일제당은 식품조미소재, 식물성 고단백소재, 사료용 아미노산 등 주력사업인 식품사업과 밀접한 그린바이오에서 두각을 드러내왔다. 최근에는 화이트바이오로 영역을 확장 중이다. 12월 컴파운딩 기업 HDC현대EP와 '바이오 컴파운딩 합작회사' 설립



CJ제일제당이 그린, 화이트, 레드 등 바이오 분야를 총망라하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등 바이오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오른쪽)와 정중구 HDC현대EP 대표가 '바이오 컴파운딩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본계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CJ제일제당

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이다. 컴파운딩은 두 개 이상의 산업 소재를 혼합하는 생산 방식이다.

이번 본계약을 통해 내년 3분기 본 생산 개시를 목표로 HDC현대EP가 보유한 충북 진천 공장에 약 240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합작법인은 CJ제일제당의 해양 생분해 플라스틱 소재인 PHA 등 생분해 소재를 활용해 컴파운딩 솔루션 개발 및 바이오 플라스틱 대량 생산에 나서게 된다.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는 "CJ제일제당의 축적된 바이오 기술 및 마케팅 역량과 HDC현대EP의 경쟁력을 결합해 다양한 친환경 컴파운딩 사업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며 "글로벌 고객의 ESG 목표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플라스틱 순환경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천렵과 바타비아 바이오사이언스 인수

레드바이오 사업 포트폴리오도 확대하고 있다. 7월 생명과학정보 기업 천렵을 약 983억 원에 인수하며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차세대 신약 개발 역량을 확보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에 존재하는 수많은 미생물과 유전자를 일컫는다.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기술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천렵 인수는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전략적 투자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기존 미생물, 균주, 발효 기술에 천렵의 마이크로바이옴 정밀 분석, 물질발굴 역량과 빅데이터를 접목해 차세대 신약 기술 개발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또 8일 이사회를 열고 네덜란드에 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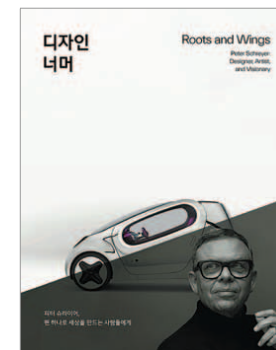
사를 둔 바이오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바타비아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약 76%를 267억 원에 인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바이오 CDMO란 세포·유전자 치료제, 항암바이러스 치료제 등의 약품 개발 회사에서 일감을 받아 원료의약품, 임상시험용 시료 등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시장 규모가 연평균 25~27% 성장해 2030년 전 세계 시장 규모가 140억~160억 달러(약 16조5000억~18조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신속한 설비 확장 등 투자를 통해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생산기지로 도약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처럼 CJ제일제당이 바이오사업에 집중하는 것은 주력사업인 식품과의 시너지를 통한 확장성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바이오사업의 실적이 좋은 것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3분기 바이오사업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35.4% 늘어난 1조442억 원을 기록했다. 바이오사업 부문 분기 매출이 1조 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업이익도 60.9% 증가한 1274억 원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은 "이미 글로벌 최고 수준인 그린바이오에 이어, 고부가가치인 화이트바이오와 레드바이오 분야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런 움직임이 그룹 4대 성장엔진 중 하나인 웰니스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현대차그룹 세계적 자동차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의 삶 조명한 책 출간



세계적 자동차 디자이너인 현대차그룹 피터 슈라이어 디자이너경영담당 사장의 삶과 디자인 철학을 심층적으로 조명한 책 '디자인 너머'가 출간된다.

피터 슈라이어 사장은 자동차 디자인 분야의 세계적인 거장이다. 아우디와 폭스바겐 디자인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며 양사의 디자인 변혁을 주도했고, 2006년 현대차그룹에 합류해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가 독자적인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가진 브랜드로 성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디자인 너머'는 피터 슈라이어 사장은 물론 관련 인물의 인터뷰와 다양한 시각 자료를 통해 피터 슈라이어 사장이 세계적 디자이너가 되기까지의 경험과 비전, 디자인 철학, 자동차 디자인 작품들의 의미를 다채롭게 풀어냈다.

정희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디자인 너머' 추천의 말을 통해 "피터 슈라이어는 뛰어난 디자이너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며, "자신만의 굳건한 철학으로 동서양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의 인생 이야기에서 많은 영감을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피터 슈라이어 사장은 "참여했던 모든 프로젝트를 잊으며 마무리했고, 언제나 꿈을 이루려 노력해 왔다"며 "나는 뺏속까지 자동차 디자이너이며, 꿈꾸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항상 행운이라고 여겨왔다"고 말했다.

'디자인 너머'는 25일부터 전국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출간 기념 전시회도 개최된다. 2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현대카드 디자인 라이브러리에서 열리며, 책과 관련된 소품과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아우디 e-트론 GT,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차'

아우디는 순수 전기 그란 투리스모 모델인 아우디 e-트론 GT(사진)가 독일 최고 권위의 자동차 상인 '골든 스티어링 휠' 어워드에서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차'를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골든 스티어링 휠'은 1976년부터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티브'와 주간지 '빌트 암 존탁'이 공동 주관하는 상으로 그 해 최고의 신차를 평가, 선정해 수여하는 유럽 최고 권위의 자동차 상이다. 올해는 약 70여 대의 새로운 모델이 12개 카테고리에서 골든 스티어링 휠 어워드를 놓고 경쟁했다.

아우디AG의 마커스 듀스만 CEO는 "아우디 e-트론 GT는 인상적인 성능과 함께 전기 이동성을 가장 감성적으로 제시하는 모델이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미래를 향한 아우디의 자세를 표현해주는 아우디의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삼성SDI, 서울대와 배터리 인재양성 협약

삼성SDI와 서울대가 손잡고 배터리 미래 인재양성에 나선다. 삼성SDI는 17일 서울대와 '서울대-삼성SDI 배터리 인재양성 과정(SNU-Samsung SDI Battery Track, SSBT)'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맞춤형 교육을 통해 배터리 소재, 셀, 시스템 분야의 핵심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대 재료공학부, 화학생물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기계공학부, 화학부 등이 참여하며 재료공학부의 강석식 교수가 양성 과정 대표 교수를 맡는다.

'SSBT'는 2022학년도부터 2031학년도까지 10년 동안 총 100명 이상의 삼성SDI 장학생을 선발한다. 석·박사 과정에 선발된 학생들은 배터리 과목 이수와 함께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삼성SDI에서 지원하는 연수 프로그램 및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다. 원성열 기자 myhuki@donga.com

이랜드리테일, 아프리카 주민 지원 '원보틀 캠페인' 실시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재단이 열악한 식수환경에 처해있는 아프리카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원보틀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랜드리테일 김스클럽의 PB(자체브랜드) 오프라이스의 생수 판매금액을 아프리

카 지역 우물 파기 기금으로 기부하는 글로벌 사회공헌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 기금은 전국 김스클럽 오프라인 매장과 김스클럽 온라인몰, 이랜드몰에서 50만 병 한정수량으로 만날 수 있는 오프라이스의 친환경



경 무라벨 생수 판매금을 통해 조성한다. 생수 판매금 전액에 이랜드재단의 후원금을 더해 아프리카 우간다 아루아, 마디-오콜로 지역의 신규 우물 설치 및 노후 우물 수리 기금으로 쓰인다.

이랜드재단 측은 "많은 고객과 후원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신중하고 새로운 나눔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하나님의교회 ASEZ·ASEZ WAO, 그린애플상·그린월드상 연이어 수상

(대학생봉사단) (직장인청년봉사단)

ASEZ, '그린십 네트워크' 공로 인정 ASEZ WAO는 플라스틱 경각심 높여 '환경보호 더 힘쓰고 동참 확대할것'



하나님의교회 대학생봉사단 ASEZ와 직장인청년봉사단 ASEZ WAO가 국제환경상인 그린애플상과 그린월드상을 수상했다. 사진제공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이하 하나님의교회) 청년들이 세계적인 환경상을 받았다. 이교회 대학생봉사단 '아세즈(ASEZ)'와 직장인청년봉사단 '아세즈 와오(ASEZ WAO)'가 유력연합, 영국 환경청이 공식 인정하는 그린애플상과 그린월드상을 수상했다. 앞서 2018년에도 하나님의교회와 ASEZ가 그린애플상 금상과 동상을 수상한 바 있어 묵묵히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이들의 행보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제적 권위의 비영리 환경단체인 '그린 오가니제이션'이 주관하는 이상은 전 세계에서 이뤄지는 우수 환경활동 사례를 발굴해 시상한다. 1994년 그린애플상

(그린애플환경상)으로 시작해 그린월드 상으로 확대됐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환경활동에 대한 혁신성, 헌신성, 사회적 이익, 미래발전 계획 등 9가지 항목을 평가해 시상한다.

시상식은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로열 호스가드 호텔에서 열렸다. 코로나 19 대응으로 연기된 2020년 시상까지 겹쳐 더욱 성대하게 진행됐다.

ASEZ는 2020년 그린월드상 금상 수상과 함께 그린월드대사로 위촉됐다. 환경보호를 위해 개인과 기관을 연결하는 '그린십 네트워크' 프로젝트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시민의 환경의무를 강조하며 이 단체가 창설한 '그린십'을 확장한 개념으로 개인과 사회, 국가, 세계를 연결해 함께 협력하는 환경 운동이다. 양형호 기자 hmyang0307@donga.com